‘파생상품 거래세’ 법안 정치·노동문제로 비화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매기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입안된 이 개정안은 지역사회와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며 정치·노동 문제로 번지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세계 17위권이지만 파생상품 거래량은 세계 1위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다른 금융상품과의 공평과세, 파생상품의 과도한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2012년부터 선물·옵션 등을 매매할 때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제는 6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 여부를 바라보게 됐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부산 지역 사회와 증권업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한국거래소(KRX) 본사가 있는 부산은 파생상품에 특화한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러려면 파생상품이 요즘처럼 급성장해야 한다. 파생상품 시장(거래대금 기준)은 매년 20~30%씩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파생상품시장에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전년보다 31.8% 증가한 57조원이었다. 올 들어서도 급증세를 이어가 3월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70조원을 넘어섰다. 부산 시민단체는 거래세 도입은 이런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역 사회 분위기를 의식한 부산지역 국회의원까지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거래세 부과는 부산을 동북아 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360만 시민의 열망을 짓밟고, 최근 신공황 문제로 절망에 빠져 있는 부산 시민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며 “이 법안을 지지하는 모든 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민주노총(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까지 가세해 “증권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필요하면 한나라당 정권 재창출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혜훈 의원 측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첫 3년간은 세금을 내지 않고 3년 후에 ‘시장 상황이 좋으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0.001%의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시장이 위축되고 국부가 유출될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부산 시민단체, 증권업계

하루 70조원 거래 시장에 찬물

통과시키면 낙선운동 펼칠 것

이혜훈 의원

과도한 투기 억제 목적으로 발의

3년 유예 후 시행, 시장 위축 안 돼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최초 3년 동안은 과세하지 않고 2015년부터 기본세율(양도가액의 0.01%)의 10분의 1인 0.001%의 세율을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현재 주식을 거래할 때는 0.3%의 거래세(코스피는 거래세 0.15%에 농어촌특별세를 합칠 경우 0.3%)를 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 법안은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번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3월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데 이어 지난달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마지막 날(4월 29일)까

파생상품에 거래세 도입, 핵심 쟁점은

자료:각 단체

반대(증권업계,부산지역 주민·의원,민주노총)	핵심 쟁점	찬성(이혜훈 의원 등)
-투자자 설문 결과 거래세 도입시 파생상품 시장 40% 가량 감소 우려	금융시장 위축	-법안 시행 첫 3년간은 세금 매기지 않고 3년 후에 0.001%의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시장 위축 우려는 기우
-세계에서 파생상품 거래세가 존재하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	부적절한 과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해 최고 40%까지 자본이득과세를 하고 있어서 거래세 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기존 주식시장 거래도 위축시켜 오히려 세수110억원 감소	세수 감소	-도입 목적은 세수확보가 아니라 공평과세, 다른 금융상품과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

주요 어린이 펀드 수익률

자료:제로인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순자산	수익률(%) 1년	3년	5년	연초후
ING미래만들기 4	ING운용	20050118	112억	28,21	30,83	57,69	10,58
KB운국민자녀사랑 A 클	KB운용	20060503	48억	35,07	24,64		10,38
NH-CA아이사랑저축1 Class C 1	NH-CA운용	20060502	74억	25,05	18,83	67,47	6,68
대신꿈나무적립1 Class C 1	대신운용	20040720	73억	30,75	20,59	62,16	11,07
동양자녀사랑1 ClassA	동양운용	20091109	253억	34,22			10,18
삼성착한아이예쁜아이 1 (A)	삼성운용	20060911	385억	32,09	46,54		10,69
신한BNPP Tops엄마사랑어린이적립식 1 (종류C 1)	신한BNPP	20050503	171억	37,07	41,29	124,11	12,47
우리쥬니어네이버적립식 1	우리자산운용	20050817	1050억	29,83	28,75	62,06	15,72
하나UBS꿈나무 Class A	하나UBS	20070504	39억	34,33	31,22		14,10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 G 1 종류C 1	미래에셋자산	20050401	125억	25,30	16,83	67,28	7,18
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K-1 종류C 1	미래에셋자산	20050422	22억	25,57	21,57	74,26	7,28
하나UBS i-사랑적립식 1	하나UBS	20050401	130억	16,43	21,62	55,74	7,11
신한BNPP봉주르앙팡이마징아시아 자나이 (종류A 1)	신한BNPP	20080421	11억	20,68	14,64		6,55

보험사가 내놓은 어린이 보험 상품

자료:각 회사

회사	상품이름	특징
교보생명	우리아이사랑보험	어린이전용 연금보험, 0세부터 가입가능, 월 보험료 50만원 이상시 최고 2% 보험료 할인
삼성생명	우리아이변액교육보험	변액보험이면서 총납입보험료의 120%(분할)를 기본 보증, 저축+투자+보장 모두 가능
ING생명	우리아이꿈이크는 변액유니버셜	사고·질병·교육자금 뿐 아니라 성인이 된 뒤 결혼자금까지 보장
동양생명	수호천사꿈나무자녀사랑보험	100세까지 보장, 암이나 뇌출혈 등 주요 질환 수술비나 입원비 보장
우리아비바생명	프리미엄아기사랑보험	스쿨존 사고 보장, 소아암과 화상·재해 골절도 보장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C보험	다발성소아암, 중증 화상, 언어 장애 등 보장
메리츠화재	M키즈 어린이보험	자녀 3명 가정 가입시 보험료 4% 할인
LIG손해보험	희망플러스자녀보험	한 자녀가정이 자녀 한 명 더 출산하면 2% 보험료 할인
한화손해보험	뉴키즈교육보장보험	부모 유고 또는 후유 장애시 자녀 교육생활 자금 지급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스마트 아이사랑보험	100세까지 보장,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질환 보장, 형제 동시 가입시 2% 할인
삼성화재	자녀보험부모마음	가장 사망 또는 후유 장애시 자녀 교육생활자금 지급

은행이 내놓은 어린이 금융 상품

자료:각 회사

은행	상품명	특징
KB	주니어스타 통장·적금	휴대전화 자동이체, 체크카드 실적, 적금 가입 중 한 가지 요건 충족시 4% 우대금리(50만원 한도)
농협	후토스어린이 통장·적금	만13세 이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0.9%p 우대금리
SC제일	자녀사랑통장	입출금 자유롭지만 찾는 횟수 적을수록 금리 높아져, 최고 연 2.5%
하나	꿈나무적금	만기 3년제 전용상품, 희망대학 합격시 금리 2%p 우대, 꿈등록(0.2%p)하고 자원봉사 10시간 이상(0.1%p), 돌찍 자녀(0.2%p) 등 각종 금리 우대
외환	꿈가득한적금	다자녀, 계약기간 등에 따라 최고 0.7%p 우대금리
우리	아이맘적금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입시 모두에게 각각 0.5%p 우대금리
신한	키즈앤틴즈 생애첫적금	만12세 이하 3년제,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시 0.2%p 우대금리
한국씨티	원더풀 산타적금	명절·어린이날·생일에 납입시 추가 금리 제공
수협	쑥쑥크는적금	연평균 키 1cm 클 때마다 0.1%p 우대금리(최고 1%p 한도)

세살부터 재테크 습관 어린이날 선물 펀드·보험·적금 ‘딱이네’

공부도 하는 어린이 펀드

자녀 학자금 마련부터 상해보험과 다양한 공부 프로그램까지…. 자녀를 위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적금과 보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눈에 띄는 투자 성과와 다양한 부가 서비스로 무장한 어린이펀드도 좋은 투자처다.

어린이펀드도 일반펀드처럼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다만 자녀를 위한 투자인 만큼 장기투자가 가능해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린이펀드의 장점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각종 서비스를 통해 살아 있는 경제교육이 가능한 것도 추가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어린이펀드의 5년간 누적수익률은 55~120%에 달한다. 1년 수익률도 16~36%를 기록하고 있다. 펀드별로는 ‘신한 BNPP Tops 엄마사랑 어린이적립식’펀드가 5년 동안 124.1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이 펀드는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과 안정적 수익을 내는 우량 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미래에셋 우리아이 세계로적립식’(74.26%)과 ‘NH-CA아이사랑적립식’(67.47%)도 같은 기간 높은 수익을 냈다.

수익률만큼이나 투자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어린이펀드와 연계된 각종 서비스다. 경제공부를 비롯한 영어와 문화 관련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의 ‘삼성 착한아이예쁜아이 어린이펀드’는 부모님과 함께 다양한 영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주말 가족영어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나눔을 체험하는 ‘삼성 착한아이봉사단’ 프로그램도 있다. 음악회 초청과 기업 방문, 주말 경제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어린이 경제블로그에서는 경제상식부터 영어·논술 등 각종 학습자료도 제공한다. 6월 10일까지 이 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삼성 스마트TV 등의 선물을 준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경제교육과 예술성·창의성을 길러 주기 위해 유명 뮤지컬 배우와 성악가 등과 함께하는 ‘예술경제캠프’를 열고 있다. 다음 달 말까지 ‘신한 BNPP Tops 엄마사랑 어린이적립식’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어린이 공부방 꾸미기’와 ‘가족여행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저평가된 기업 골라 장기투자
5년간 수익률 55~120% 기록

어린이펀드로 가장 규모가 큰 ‘우리 쥬니어 네이버적립식’은 펀드 누적액이 30만원이 넘으면 어린이 상해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전용 사이트에서 어린이를 위한 경제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KB자산운용은 기존의 어린이펀드인 ‘KB캥거루적립식’의 이름을 ‘KB 온국민자녀사랑’으로 바꾸고 판매보수와 운용보수를 낮추고 7월 말까지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등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한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다양한 적금·예금·보험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보험 하나 들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어린이 보험은 질병이나 재해 사고에 대비해 치료 자금을 보장받는 보장보험과 학자금 마련을 위한 교육보험 두 종류다. 보장보험은 아이들이 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한 입원비와 수술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이 예전에는 20~30세까지였지만 최근 출시되는 상품들은 100세까지 보장하는 것도 있다. 보장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 아이들의 상해·질병에서 더 나아가 집안의 가장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쳐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자녀의 학자금을 주는 상품도 나오고 있다. 상품에 따라서는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학원폭력 위로금 항목까지 있다.

보장 내용이 이처럼 다양한 만큼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상품별로 다른 보장 내용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 보험은 몇 년 전부터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상품(정액 보상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장하는 상품) 판매가 허용되면서 생보사와 손해보험사 간 보장 차이는 거의 없다. 단 어린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은 손보사 상품만 가능하다. 즉 자녀가 남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다른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등의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는 손보사 상품만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여러 개 들어도 중복 보장이 안 되고 실제 치료비 범위 내에서만 보장되기 때문에 여러 개 가입할 필요가 없다”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때는 만기에 돈을 일부 환급받는 상품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한 순수 보장형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흔히 교육보험으로 불리는 어린이 저축보험도 투자 성격의 변액 교육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삼성생명의 ‘우리아이 변액교육보험’은 변액보험이면서도 최소한 납입보험료의 120%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교보생명의 ‘우리아이사랑보험’ 같은 어린이 전용 연금보험도 나왔다. 출생

투자 성격의 저축보험 눈길
부모와 함께 가입 땐 우대금리

후부터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어린이 보험은 상품 특성상 다자녀 가정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곳이 많으므로 혜택을 잘 알아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용돈관리 습관을 키우려면 은행이 내놓은 어린이 특화 예·적금을 활용하면 좋다. 대개 기본 금리에 각종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 금리를 주는 방식으로 마케팅하고 있다. 희망 대학에 합격하거나(하나은행), 카카 크거나(수협), 특정 명절에 예금을 하거나(한국씨티), 돈을 적게 인출하거나(SC제일), 다자녀 가정이거나(외환), 부모·자식이 함께 가입(우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윤창희 기자 theplay@joongang.co.kr

은행들 ‘2조 클럽’ 보인다 … KB, 1분기 7575억 순익

경기 회복, 금리 인상 영향

시작이 좋다. 금융지주사들이 양호한 1분기 성적표를 속속 내놓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 한 해 순이익 기준 ‘2조 클럽’에 무난히 진입할 거란 전망이다.

4대 금융지주사 중 깜짝 실적의 주인공은 KB금융지주였다. KB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올 1분기에 7575억원의 순익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 3409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것이다. 분기 실적으로는 지주사 설립 전인 2007년 1분기(1조 1825억원) 이후 최고치다.

우리금융은 5000억원이 넘는 1분기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1분기보다는 감소했지만, 당시엔 하이닉스 지분 매각 등 일회성 이익이 반영됐던 점을 감안하면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란 평가다. 하나금융지주는 3895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80% 증가한 순이익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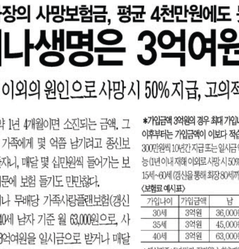
오는 4일엔 신한금융지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증권업계에선 6000억원대 중반에서 7000억원대 당기순이익을 내다본다. 일부에선 KB금융지주를 웃도는 순익을 거둘 거란 전망도 내놓는다.

은행권 실적이 좋아진 건 경기 회복과 금리 인상 등으로 영업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서다. 대우증권 구용욱 연구원은 “자산이 늘어나고 마진은 개선되면서 충당금은 줄어드는 실적 호조의 ‘삼박자’가 갖춰졌다”며 “은행권 실적은 당분간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제회계기준(IFRS)이 1분기부터 도입된 효과도 더해졌다. 지난해까지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권고 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쌓았지만 올해부터는 과거 평균 손실률을 기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한다. 금감원 기준보다 과거 평균 손실률이 낮기 때문에 충당금이 줄어든 것이다.

시장에선 2분기 은행권 순이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이고은 연구원은 “2분기에도 여건이 괜찮은데다 현대건설 매각이익까지 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금융지주사에 대한 올해 실적 추정치를 속속 올릴 예정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낸 KB·우리·신한금융지주의 올 한 해 순이익 추정치 평균은 이미 2조원대다. 신한지주가 2조9161억원으로 가장 높고, KB금융도 전년보다 24배 늘어난 2조5072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2011년 금융지주사 실적전망



[광고]

이순재가 추천하는 노인 필수 보험! 50세~80세라면 나이, 건강, 직업 상관 없이 가입 가능

가입 2년 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 1,000만원 지급(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 제외)

이순재가 추천하는 라이나생명 무배당 OK실버보험(경신형)이 새로워져 화제다. 새로운 OK실버보험은 가입 2년 이후 일반사망 시 1,000만원을 보장하고 가입 후 바로 재해사망 시 일반사망보험금의 두 배인 2,000만원을 보장한다. 또 재해사망보장은 가입 후 바로 약속된 보험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장점이다.

라이나생명 보험관계자는 “요즘 일하는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만에 하나 일하다가 재해사망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노인 분들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교통사고나 낙상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재해사망보장을 늘린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새로워진 OK실버보험은 50~80세라면 나이, 직업,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금은 지급사유 발생 시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지급된 보험금은 가족을 위한 유산 등으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가입 시 건강진단서나 건강심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등의 경우 계약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보험료 예시표)

연령	마이OK실버보험(경신형) 남성	마이OK실버보험(경신형) 여성	마가렛사랑플랜보험(경신형) 남성	마가렛사랑플랜보험(경신형) 여성
50세	47,300원	22,200원	5,500원	2,500원
53세	48,300원	22,700원	6,800원	3,100원
55세	48,800원	22,700원	7,900원	3,500원
57세	49,300원	22,800원	9,300원	4,100원
60세	50,300원	23,800원	11,700원	5,300원
기준	7년 만기		10년 만기	

*예시기준 : 가입금액 1천만원, 최초계약, 7년 만기, 전기월납, 순수보장형 *30~60세인 경우 계약 전일까지 만기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료 *가입금액 3천만원 이상의 경우 3천만원 기준 *표준체 기준 인수 불가 *표준체 기준 인수 불가 시 보험료 할증 *기본 충족 조건 : 청신호는 상해으로 경신을 통해 3천만원까지 보장가능, 청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

해지환급금 예시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600,000원	163,500원	27.1%
3년	1,830,000원	487,557원	26.9%
5년	3,018,000원	281,675원	9.3%
7년	4,225,200원	0원	0%

*표준체 기준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된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음 *표준체 기준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된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음 *표준체 기준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된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음 *예시기준 : 가입금액 1천만원, 최초계약, 7년 만기, 전기월납, 순수보장형 *30~60세인 경우 계약 전일까지 만기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료 *가입금액 3천만원 이상의 경우 3천만원 기준 *표준체 기준 인수 불가 *표준체 기준 인수 불가 시 보험료 할증 *기본 충족 조건 : 청신호는 상해으로 경신을 통해 3천만원까지 보장가능, 청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 보험사명 :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종목 : 생명보험 보험료 : 월납 기준 보험기간 : 종신